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동아 디지털 콘텐츠 편성표 개편...
콘텐츠에 깊이와 재미를 더하다

3면

압도적 스케일의 채널A 총선 보도...
총편 1위

4면

'거리의 예술가'뱅크시전 개최



동아일보 임직원들이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104주년 기념식이 열린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동아일보는 시작부터 현장을, 진실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신문”

동아일보 창간 104주년 기념식...1920년 창간부터 지켜온 '불편부당 시시비비' 강조

2024 동아 Legacy Power Up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오른쪽)이 근속 10년 대상자인 편집국 산업1부 변중국 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기념식 참석자들이 동아일보의 디지털 분야 성과를 담은 창간 기념식 영상을 보고 있다.

“현장을 지키며 정의와 진실을 알린다”는 동아의 정신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일보 창간 104주년 기념식에서 “동아일보는 시작부터 현장을, 진실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신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가 1920년 창간부터 지켜온 현장과 진실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한 것. 또 김 회장은 “동아일보가 104년 동안 신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하는 동아의 정신을 지켜내면서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도전도 주문했다.

역사의 현장과 함께 한 동아 104년

김 회장은 이날 창간 기념사에서 동아의 정신을 보여주는 창간 초기 일화들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인촌

과 동아일보 기자들은 진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현장을 지켰다”며 “19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3·1 운동 공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3·1 운동 지도자들의 의연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921년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 백두산 천지를 촬영했으며 1923년 9월 간도대지진 현장에 기자를 보내고 같은 해 뉴욕, 도쿄, 상하이 등에 상주 특파원을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와 콘텐츠의 근간인 ‘팩트’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압력과 괴롭힘이 현장에 들어서서 직접 확인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정직함이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모든 부당한 것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지켜본 세상에 거짓이 들어설 곳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현장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로 확장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이날 김 회장은 지면과 디지털을 넘나들며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도 언급했다. 먼저 김 회장은 편집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보도와 관련해 “편집국은 <총선 LIVE> 시리즈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D브리핑>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을 담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신설된 DX 본부의 활동과 관련해 “DX본부는 새로운 디지털 저널리즘을 만들고 있다”며 “<전세사기 1년의 그늘> 등 인터랙티브 뉴스 콘텐츠를 선보이며 독자와의 다양한 소통 경험을 보여줬다”고 했다.

또 DX본부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에스크동아>, 미래전략연구소의 AI 챗봇 <에스크비즈>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AI 프로젝트들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2월 본격 가동한 <드림캐버스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동아의 뉴스와 콘텐츠에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 줄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자 106명 표창 수여

이날 기념식은 ‘동아 Legacy power up’을 주제로 진행됐다. 100년 넘게 지켜온 ‘불편부당 시시비비’의 동아 정신을 바탕으로 저널리즘과 콘텐츠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켜 앞으로의 100년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자는 취지다. 기념식에는 히어로콘텐츠 제작, 동아닷컴 개편, AI 활용 서비스 개발 등에 참여한 8명의 직원과 장기근속 사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장기근속 표창 수여식에서는 김순덕 고문(40년 근속), 정용관 논설위원실장(30년 근속), 조성기 출판국 마케팅관리팀장(20년 근속), 변중국 편집국 기자(10년 근속)가 근속자들을 대표해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올해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는 총 106명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표창장과 기념 선물이 전달됐다.

동아 디지털 콘텐츠 편성표 개편...콘텐츠에 깊이와 재미를 더하다

동아닷컴, '당신의 뉴스' 기능으로 DIY형 뉴스 플랫폼으로 변신

혁신가들의 특별한 인터뷰
<브레이크퍼스트(Break-First)>

신규 디지털콘텐츠

조건회의 복지 조건

당신의 뉴스

여행의 기분

소소칼럼

당신의 뉴스

모두의 뉴스

당신의 뉴스

DX본부 부분부장 김희균

'관성을 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브레이크퍼스트(Break-First)'의 첫 번째 주인공은 냉동김밥을 처음으로 개발한 조은우 복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사진). 브레이크퍼스트의 내용은 뉴스레터와 온라인 기사, 영상으로 모두 만날 수 있다.

동아의 디지털 콘텐츠가 봄을 맞아 더욱 다채로워졌다. 지난해 1월 국내 언론사 최초로 디지털 편성표를 선보인 동아일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여왔다. 여기에 올해 첫 개편을 통해 한층 더 매력적인 콘텐츠들을 가득 채웠다.

더 깊고 풍성한 디지털 콘텐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리즈 15개가 시동을 걸었다. 주중엔 깊이 있는 시사 콘텐츠가, 주말엔 심신에 즐거움을 주는 건강 문화 콘텐츠가 많이 배치됐다.

먼저 동아일보 기자들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코너가 늘었다. 사회부 조건회의 차장의 <복지의 조건>은 의료 갈등 국면에서 '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 실험'을 첫 회로 선보였다. 동아닷컴 및 포털에서 높은 조회 수를 올린 것은 물론 '이런 설명이 필요했다',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게 됐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팀워크가 빛나는 연재물도 강화됐다. 정

치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쓰는 <용쌔>의 '윤 대통령, 목심과 쇠고기 사이'는 동아닷컴에 약 120개의 댓글이 달리며 토론의 장을 깔았다. 경제부 세종팀 기자들의 <정책 위치>는 사과값이 치솟은 이유, 물가 문제, 역대 연봉자 현황 등 생활밀착형 경제 이슈들을 '1타 강사'처럼 풀어 호평을 받고 있다.

<시크릿 가든>, <아트로드> 등 설레는 여가를 위한 콘텐츠도 강화됐다. 특히 시즌 맞춤형 여행 정보를 아끼지하게 담은 뉴스레터 <여행의 기분>이 목요일마다 구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간 큰 사랑을 받은 <도발>, <정치연락>, <답다이브>, <100세 카페>는 든든하게 기세를 이어가고 젊은 기자들은 <선넘는 콘텐츠>, <소소칼럼> 등을 통해 신선함을 더한다. 텍스트, 영상, 사진을 다양하게 변주해 각 특성에 맞는 플랫폼을 공략하는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 <브레이크퍼스트>, 1인 대담 형식으로 새단장한 <중립기어>도 듣고 보는 재미를 더욱 높였다.

'나만의 플랫폼'으로 변신한 동아닷컴

동아의 풍성한 콘텐츠들을 담아내는 플랫폼도 크게 달라졌다. 국내 언론사 플랫폼 최초로 이용자들이 '나만의 뉴스'를 꾸릴 수 있도록 시도한 혁신적 결과물이 나왔다.

'DIY(직접 해보기)'형 뉴스 플랫폼이 된 동아닷컴은 이용자가 로그인한 뒤 '당신의 뉴스'를 클릭하면 완전히 다른 홈페이지로

변신한다. 각 이용자가 구독 중인 기사, 이슈, 시리즈 등의 최신 기사가 상단에 먼저 펼쳐진다. 그 아래로는 시가 이용자 분석을 통해 골라준 '오늘의 추천 뉴스'가 이어진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주는 똑똑한 플랫폼이 된 것이다.

회원정보 메뉴에서 '내 콘텐츠'를 클릭하면 최근 활동과 성향을 분석해 취향까지 알

려준다. 요즘 어떤 분야의 기사를 많이 봤는지, 최근에 단 댓글과 기사 공유 현황은 어떤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에 따라 '댓글왕', '미라클 모닝 실천가', '지적인 올빼미' 등 48개의 배지도 부여해 몰입도를 높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도심 속 마라톤 축제

2024 서울마라톤 겸 제94회 동아마라톤, 70개국 3만8000명 참가



2024 서울마라톤 겸 제94회 동아마라톤 참가자들이 3월 17일 풀코스 출발지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3월 17일 열린 2024 서울마라톤 겸 제94회 동아마라톤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3만8000명(풀코스 1만8000명, 10K 2만 명)의 러너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풀코스 출발지인 광화문광장, 10K 출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올해도 서울마라톤은 국내 유일의 세계 육상 문화유산 겸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인증 대회로 개최됐다.

올해 2만 명의 참가자가 달린 10K 부문은 코스를 대폭 개선했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코스로서 송파대로 양방향으로 전면 이용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러너들은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달리기를 펼칠 수 있었다. 또 코스 중간 송파지하차도 구간에서는 참가자들이 터널 안 소리 울림을 이용해 서로 큰소리로 응원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풀코스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육현표 대한육상연맹회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이인철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문헌

종로구청장, 피터 콕 아디다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러너들을 격려했다.

올해 서울마라톤에서는 처음으로 '동마크루'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다. 크루들은 급수대, 물품보관소, 기념품 배부, 참가자 안내 등 다양한 곳에서 땀 흘리며 참가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이번 대회는 채널A 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많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대회를 즐겼다. 또 당일 중국 CCTV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도 중계됐다. 대회 후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젊은 러너들을 중심으로 많은 참가 후기 및 인증샷, 영상이 업로드돼 대회의 열띤 분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회 전날과 당일 이들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4 서울마라톤 엑스포에서는 아디다스를 비롯한 포카리스웨트, 오트사이드, 아미노바이탈, 삼양 등 여러 협찬, 협력사 부스들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즐길 거리도 제공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신강혁



① 일민미술관 옥상 광화문 전광판에 채널A 개표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 ② 김윤수 앵커가 청계광장에 펼쳐진 대형 지도 'A-MAP'를 통해 실시간 판세를 전하고 있다. ③ <나의 선택 2024> 방송 모습. ④ 실시간 개표 상황을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3D로 구현했다. ⑤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채널A 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⑥ 늦은 시간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시민들. 사진=편집국 사진부 최혁중

압도적 스케일의 채널A 총선 보도…종편 1위

3D 전광판·청계광장 A-MAP 등 시도…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개표 방송

22대 총선 개표가 한창인 4월 10일 저녁, 일민미술관 옥상 광화문 전광판에서 국회 의원 후보자가 화면 밖으로 손을 뻗어 국회의원 배지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신기하다는 듯 구경에 빠졌다. 채널A의 국회의원 선거방송 '나의 선택 2024' 킬러콘텐츠 'A-QUBE'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것이다.

광화문에서 벌어진 '선거 축제'

지난 하반기 출범한 채널A 선거방송기획TF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콘셉트를 '유권자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정하고 준비

비에 들어갔다.

TF가 주목한 것은 타 언론사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채널A의 위치였다. 광화문 일대의 랜드마크인 동아미디어센터, 서울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일민미술관, 시민의 소통공간인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채널A만 활용할 수 있는 '레거시'를 선거방송으로 연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오픈스튜디오 등 채널A 선거방송 강점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고민하던 중, 동아일보에서 일민미술관에 대형 3D 커브드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사실도 접하게 됐다. 'A-QUBE'의 시작이었다.

DAMG 협업의 결정판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입체감 있는 선거방송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을 했지만 3D 제작은 처음이다 보니 원하는 퀄리티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미디어그룹 조직들의 협업이 빛을 발휘하면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3D 디자인 제작을 맡은 채널A B&C 구성원들은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지난 몇 달간 밤을 새기 일쑤였다. 채널A 뉴스버전은 입체감 있는 후보자 촬영을 지원했고,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채널A 미디어텍이



앞장서 해결책을 찾았다. 미래클랩은 별도의 낭독조 교육 커리큘럼까지 만들어 교육을 시켰다. 동아일보 AD본부와 동아닷컴, 경영지원본부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채널A 편성전략본부는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종편 선거방송 시청률 1위

청계광장에서 펼쳐진 대형지도 'A-MAP'은 실내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외부로 공간을 확장해 시민들과 호흡하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연출했다.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알파'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1당 바로미터 지역' 10곳을 추려 자체 예측 조사를 실시했다.

채널A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은 직관적인 선거 정보 전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부했다. 그 결과 선거 당일 종편 4사가 공동으로 개표방송을 한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평균 시청률이 2%가 넘으며 종편 4사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표 마감 후 예측조사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시청률이 상승하며 3%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방송을 통해 채널A를 포함한 동아미디어그룹이 축적한 경험은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선거방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TF 손영일

신동이 아빠들의 고군분투 육아기 <아빠는 꽃중년>

4월 18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연예계 대표 늦둥이 아빠들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다. 왼쪽부터 배우 김용건, 개그맨 김구라, 가수 신성우, 배우 안재욱, 가수 김원준.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만드는 육아 예능은 어떻게? 연예계 대표 꽃미남에서 신동이 아빠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인생 2막을 시작한 늦둥이 아빠들의 리얼 육아기가 공개된다.

채널A 새 예능 <아빠는 꽃중년>은 신성우, 안재욱, 김원준 등 평균 나이 53세의 아빠들의 현실 육아를 보여준다. 환갑을 앞두고 있는 57세 아빠 신성우는 8살, 3살의 두 아들과 함께하는 반전 일상을 공개한다. 대충 육은 머리에 편안한 차림으로 아기 띠를 매고 육아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감성 터프가이의 푸근한 인간미를 볼 수 있다.

원조 한류스타 안재욱(52)은 45세에 득녀, 50세에 득남한 사랑꾼으로 조직 내 행동 대장으로 나서 '겉바속촉' 매력을 드러낸다. '늦둥이 파파클럽'의 막내는 49세에 둘째 딸을 얻은 김원준(51)이 말한다. 한 많은 독박 육아의 경험을 살려 잔소리 대마왕 역할을 자처해 뜻밖의 웃음을 선사한다. 세 명의

'꽃중년' 아빠들과 함께하는 MC로는 국민 배우 김용건과 개그맨 김구라가 나선다.

원조 연예 예능 <하트시그널>로 풋풋한 설렘을 전했던 스튜디오E 박철환 PD는 이번에는 늦둥이 아빠들의 삶을 조명한다. 박 PD는 "중년의 나이에 아이를 갖기로 용기 낸 아빠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다"며 <하트시그널>과 다른 장르이지만 '사랑'을 통해 성장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년을 규정짓지 않고 새롭게 바라보려 했다. 좌충우돌 뜨거운 중년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신선한 물음표를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때론 잔한 늦둥이 아빠들의 행복하게 살 궁리를 담은 <아빠는 꽃중년>은 4월 18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정수민

더 강력한 영업비밀과 돌아온 <탐정들의 영업비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



재정비를 마치고 4월 15일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탐정들의 영업비밀>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더 강력한 영업비밀과 함께 돌아왔다. 1월 파일럿을 통해 흥미진진한 직업 탐정의 세계를 풀어낸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재정비를 마치고 4월 15일 정규 편성으로 시청자를 찾았다.

새롭게 시작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직업 탐정들이 시청자의 의뢰를 직접 해결해준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3월부터 TV 광고를 통해 사연을 모집했고 헤어진 가족 찾기, 전세사기, 층간 소음, 스토킹 등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직접 의뢰한 사건을 탐정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생생히 담길 예정이다. 솔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탐정들의 노하우와 팁도

날날이 공개된다.

탐정단도 대거 보강됐다. 파일럿 때 활약한 '부산 갈매기 탐정단' 외에 각 분야별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새로운 탐정단들이 등장한다. 이제껏 다른 예능에선 볼 수 없던 탐정들만의 영업비밀을 털어놓으며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데프콘, 유인나, 김풍 세 명의 MC들은 "파일럿 때보다 더 강력해졌다"며 "매번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 진한 재미로 돌아온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스튜디오D 2CP 김진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전 개최

5월 10일~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그라운드서울에서 전시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영국 출신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의 전시가 5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그라운드서울 기획전시관(구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는 올해 전시 라인업을 준비하며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유티로 MZ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뱅크시 전시를 우선 고려했다. SNS에서 뱅크시와 관련한 화제성이 높다는 점을 토대로 젊은 관객들의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문화사업본부는 올해 초부터 전시 파트너들과 함께 뱅크시의 오리지널 작품 전

시를 추진했고, 페스트 컨트롤을 통해 오리지널 작품 29점의 공식 인증서를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번 전시는 세계 최초로 ‘페스트 컨트롤(뱅크시가 설립한 본인 작품의 판매 및 인증기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전시회로, 오리지널 작품 29점과 포스터, 사진, 영상 자료 등이 전시된다.

전시 <REAL BANKSY : Banksy is NOWHERE>은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전시를 통해 거리 예술로부터 파생된 그의 초기 작품부터 이후 20여 년간의 비폭력주의, 예술의 자본화 등 다양한 사회변혁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그의

행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뱅크시의 대표 작품인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와 ‘꽃 던지는 소년(Love is in the air (Flower Thrower))’, ‘원숭이 여왕(Monkey Queen)’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기간 동안 14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드로잉으로 재현한 ‘디즈널랜드’와 ATM 퍼포먼스 등을 통해 뱅크시의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 예매는 네이버, 티켓링크, 티몬, 예스24, 29CM, 카카오톡 예매 등에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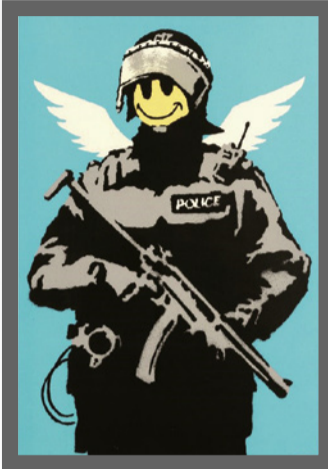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김민환



〈꽃 던지는 소년(Love is in the air)〉



〈날고 있는 경찰관(King Copper)〉



리얼뱅크시(REAL BANKSY : Banksy is NOWHERE) 전시 포스터

채널A 복지포인트 제도 4월 도입, 연간 200만 포인트 지원

4월 3, 4일 사원 설명회 진행... 취향에 따른 다양한 복지 혜택 경험



SK베네피아 담당자가 4월 3일 동아미디어센터 19층 DD큐브에서 복지포인트 사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채널A는 4월 1일부터 임직원의 편의를 높이고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 복지포인트 제도란 배정된 포인트를 활용해 다양한 복지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채널A 임직원은 연간 총 200만 포인트(일반 160만 포인트, 검진 40만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데 올해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일반 120만 포인트, 검진 40만 포인트가 지급됐다. 사용 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배정된 일반 120만 포인트는 SK 엠앤서비스 복지몰(이하 베네피아) 내 다양한 카테고리(도서·교육, 여행·레저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카페, 편의점 등)에서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다.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과 함께 채널A 임직원이 누리는 건강검진 혜택도 변화된다. 본인 건강검진 전용인 검진 포인트는 ‘검진권’ 형태로 매년 전 사원에게 부여된다. 이로써 만 40세 미만 미혼 사원은 격년 지원 받던 검진 혜택을 매년 지원받게 됐고 기혼 사원은 일반 포인트를 가족 건강검진에 활용 가능하다. 또 기존 13개 기관에서 29개 기관으로 제휴 건강검진 기관을 늘려 전국 약 50여 개 지점에서 검진이 가능해졌다.

경영지원본부는 4월 3, 4일 광화문, 상암 사옥에서 사원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운영기준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사원 설명회에는 다양한 실본부에서 40여 명의 사원들이 참석했고 여러 질문들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졌다.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방준영

신간소개

〈중동 인사이트〉
경영전략실 이세형 팀장



채널A 경영전략실 이세형 정책 기획팀장이 중동의 다양한 이슈를 입체적으로 다룬 〈중동 인사이트〉를 출간했다. 카타르 도하에서의 연구원 생활과 이집트 카이로 특파원 활동을 토대로 중동의 다양하고 생생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을 담았다. 중동을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은 물론 중동 특유의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슈 등이 고르게 담겨 있다.

DAMG 수상소식

히어로콘텐츠 ‘표류’ 한국신문상 수상

동아일보 6기 히어로콘텐츠 팀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가 한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신문상 기획탐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급한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도로 위를 떠도는 응급의료 체계를 다룬 시리즈는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태를 내러티브 기사와 인터랙티브



뒀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히어로콘텐츠 6기팀 이상환, 양충현, 임희래, 송혜미, 임상아, 위은지, 조건희, 이자윤 기자.

콘텐츠로 선보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널A 백승우 기자, 사랑의 금십자상 수상

채널A 보도본부 백승우 기자가 3월 30일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제55회 사랑의 금십자상’을 수상했다.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백승우 기자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강선구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 ① 제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입니다.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흡수하여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② 최근에 헬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③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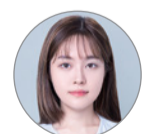
유연수 / 동아일보
편집국

- ① 안녕하세요!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된 유연수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아일보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② 저는 요즘 공방 체험과 축구 관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향수 만들기, 베이킹, 도자기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기분 전환과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공방체험과 축구 직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다혜 / 동아일보
편집국

- ① 항상 동아일보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며, 이를 신속히 숙지하여 업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주어진 모든 일에 배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 ②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분야(신문제작)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법을 익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지유 / 동아일보
DX본부

- ①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니다! ㅎㅎ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 ② 최근 영화 2에 푹 빠졌습니다! 요즘 방에서는 둔 사운드트랙을 항상 재생한 채로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주류의 탄생〉 출판국 고재석 기자



동아일보 출판국 고재석 기자가 금기와 경계를 넘나드는 ‘제3의 생각’에 주목한 책 〈새로운 주류의 탄생〉을 출간했다. 중도적 시각을 견지해 온 정치인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지식인 1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적대 관계가 격화되는 정치 상황의 새 해답을 모색한 책이다. 1940년생(김종인, 라종일)부터 1985년생(이준석)까지 다양한 세대, 배경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